

# 여신의 질투...神弓 구한 독수리...영웅담과 수호신의 전설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9〉 무사 '에르 토스티크'와 독수리



카자흐스탄의 '베르쿠치'(독수리 사냥꾼) 아빌카르 툴리바예프씨가 전통 거울사냥 복장을 입고 검독수리 제뿔을 선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카자흐스탄 = 윤영기 기자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에서 이틀을 기다린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수소문으로 찾아간 그의 보급 자리는 험산산맥의 한 자락인 꼭두베산 아래 따따리 지역에 있었다.

독수리 사냥꾼, '베르쿠치'가 그의 직업이었다. 그를 예뻐 찾아 만난 것은 카자흐스탄 옛 무사들의 상징인 독수리에 얽힌 전설을 듣고 싶어서였다. 아빌카르 툴리바예프(71)씨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독수리, 매와 함께 살았다고 했다. 그는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앙아시아 전통, 독수리 사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사냥꾼이다.

"누구나 독수리를 가질 수 있지만, 독수리와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사냥꾼이 될 수 없어. 독수리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친구이자 사냥의 동료라는 마음을 독수리에 심어주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야." 그는 먹이감을 단숨에 덮치는 독수리의 기세처럼 매섭고 단호하게 사냥꾼의 철학을 압축했다.

"제뿔(22·외톨이라는 뜻)의 몸무게는 6.6kg으로, 중앙아시아 사냥독수리 중 두 번째로 덩치가 크다. 또 한 놈은 아유(16·곰)라고 부릅니다."

한참 독수리 사냥 얘기를 듣고 난 취재진이 '본문'을 청하자, 그가 신신히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첫 이야기는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보은의 독수리'이다.

목동이 어느 날 여우를 사냥하던 독수리가 되레 여우에게 날개를 물려 죽게 된 것을 구해냈다. 독수리는 몸이 완쾌된 뒤에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목동에게 여우, 토끼를 물어다 줬다. 양치기는 독수리와 인연으로 베르

쿠치가 됐다.

독수리가 엄청난 양의 여우와 토끼를 잡는 덕분에 양치기는 내로라하는 부자가 됐다. 양치기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독수리도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의 우정에 감동해 목동의 곁에 그를 묻었다는 줄거리였다.

툴리바예프씨는 서툰적인 보은의 독수리 이야기를

에르 토스티크는 시간 단위로 성장해 1년 만에 견장한 청년으로 자란다. 신궁이었던 그는 수백 m 떨어진 곳에서 말을 탄 사람이 엄지와 검지를 맞대 원을 만들면 화살을 쏘아 그 동그라미를 관통했다고 한다.

미남이었던 에르 토스티크는 신(神)의 짝사랑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헤맨다. 페리의 딸 백토리의 질투는 그를 죽음으로까지 내몬다.

## 수천년 이어온 야생과 인간의 우정 힘·용맹·예지의 상징...신화속 영물

마치고 나서야 진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카자흐스탄 유목민의 삶과 신비로운 마법, 주술이 펼쳐지는 '에르 토스티크' 민담이다. 인간과 독수리,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쌍두 독수리는 주인공 에르 토스티크를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해내는 예지의 동물이자, 수호신으로 등장한다.

에르 토스티크의 탄생은 처녀임태, 난생설화 등 신화의 여는 주인공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늙은 유목민 에르 나자르 부부는 유르트(유목민의 주거용 천막) 천장에 매달린 말고기 가슴살을 먹고 임신, 9개월 만에 주인공을 얻는다. 그가 8명의 아들 가운데 아홉째로 태어난 것은 상징이다. 한국 사람들이 숫자 '7'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9'에 집착한다. 보통 선물할 때도 아홉 개의 물건을 갖춘다.

백토리가 마귀할멈 바바 야가를 조종해 에르 토스티크를 생포하려 하지만 미수에 그친다. 에르 토스티크는 약혼녀 케케케이가 보내준 명마 살쿠이리크를 타고 위기에서 벗어난다. 화살보다 빠른 살쿠이리크는 말을 하는 지혜있는 말(馬)이었다.

기쁨도 잠시, 위험에서 벗어난 에르 토스티크는 '바나'가 지배하는 뱀의 지하왕국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주인공을 돕는 구원병들은 이 때 어김없이 등장한다. 번개 보다 빠른 손을 가진 도둑, 바람보다 빠른 '바람다리', 호숫물을 통째로 마시는 위대(胃大)한 자, 천리안을 가진 사람 등이다.

고비 때마다 펼쳐지는 이들의 활약은 능소능대(能小能大)란 말이 무색하다. 심연의 호수 밑바닥에 숨겨진 슬단지 찾기 게임에서 '위대한 자'가 호숫물을 다 마셔

버리고, 그 물을 토해내 화재를 진압하는 식이다.

사랑에 눈이 먼 백토리는 집요하다. 마귀할멈의 아들 소인 툴라크를 겁박해 에르 토스티크를 죽이려고 명령한다. 그는 '천하장사'인 소인 툴라크에게 붙잡혀 천길 우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인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에르 토스티크는 쌍두 독수리가 건네준 마법의 깃털을 품에서 꺼내 물에 문지른다. 거대한 독수리는 이때 유유히 나타나 우물에서 주인공을 꺼내준다. 쌍두 독수리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소인 툴라크를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준다. "소인 툴라크는 영혼이 죽지 않는 한 사멸하지 않는 불사신이다. 그가 영혼을 몸에서 빼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 두었다"는 것이었다.

귀골(貴骨)을 타고난 에르 토스티크에게 또 다른 여성이 접근한다. 소인 툴라크의 화대를 못꿨던 그의 아내 쿤케이는 "남편이 검은 염소의 내장에 영혼을 감쳤다"는 비밀을 털어놓는다.

에르 토스티크는 검은 염소의 내장을 가르고 8마리의 병아리로 둔갑한 소인 툴라크의 영혼들을 죽인다. 영혼을 잃은 소인 툴라크는 죽음을 맞고 에르 토스티크는 약혼자 케케케이와 평온한 삶을 찾는다.

아스카를리 카자흐스탄 국립 아우에조바 문화예술 연구소장은 "에르 토스티크는 고대 서민적 신화에 토대를 둔 것으로, 신화적 상상력과 아름다운 묘사를 간직한 민담"이라고 설명했다. /penfoot@kwangju.co.kr



독수리를 들고 있는 에르 토스티크를 그린 그림.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택1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